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유료화 논란

“해마다 관광객 늘어 관리 비용 필요”

“단순한 보행로 돈벌이 수단 안된다”

담양군이 지역명물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담양읍~금성면 1.5km)의 유료화를 추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의 주변 자연경관 보존과 생태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리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은

지난 2002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후 각종 드라마와 영화, CF 등에 소개되며 지난해 117㏊ 5000명이 다녀 갈 정도로 유명 관광명소로 부각됐다.

군 조례안에 따르면 ▲관광 편의시설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로수길 입장시간 제한 ▲입장료 징수시설의 운영 등이 주요 퀄리티를 이루고 있다.

이번 조례는 입장료 예고를 거쳐 오는

7월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공표된다.

군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아이 1000원의 입장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주변에 기후변화 체험관과 생태식물원, 전통 놀이마당 등 관광·체험시설로 조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군의 조례안 추진에 대해 담양출신 향우들과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들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지방도가 아닌 국도에 위치한데 단순한 보행로일뿐인데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불가사리 잡고 치어 방류하고 ‘푸른 바다 가꾸기’

수협 중앙회 고흥 녹동항서 행사

수협 중앙회는 ‘제16회 바다의 날’을 앞두고 지난 26~27일 고흥 녹동항 일원에서 ‘푸른 바다 가꾸기’ 행사를 개최했다.

수협은 바다사랑 운동인 ‘클로버(c-lover)운동’의 일환으로 범국민적 해양환경 보존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매년 전국 항·포구에서 ‘푸른바다 가꾸기’ 행사를 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천 국회의원, 이종구 수협 중앙회장, 박병종 고흥군수, 고광남 고흥수협 조합장을 비롯한 수협 임직원과 관내 기관단체장, 어업인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부대행사로 26일에는 소록도 인근 어장에서 수협 스쿠버 동호팀과 고흥 잠수협회 회원 등 7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불가사리 퇴치 대회를 열어 불가사리 20여마리 수거했다.

27일에는 본 행사로 참가자 모두가 ‘바다 지킴이’가 되어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는데 앞장서 나간다는 의지



를 담은 ‘푸른바다 가꾸기 결의 대회’를 가졌다.

또 참석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지도선을 타고 소록도 인근 해역에서 넘치 치어 7만5000마리를 방류했다.〈사진〉

고광남 고흥수협 조합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해양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바다의 현상을 알려 보다 많은 이들이 바다 사랑 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iju@

그린벨트내에 저온저장고 건립 허용

전남도 화순·나주 2곳 주민 소득창출 사업

전남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보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부터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창출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상·하수도나 농로 포장 등 생활편의 기반시설 지원에 그쳤었다.

이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심해져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소득증대 창출사업이 절실히하고 건의, 올해 국가정책

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내 소득창출사업에 화순군 화순읍 이집곡리 한약초 저온저장고와 나주시 낭평읍 평산리 체소·과일 저온저장고 등 2곳을 비롯해 전국 총 6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전남 2개 사업장에는 총 9억 원을 투입해 지역의 특화상품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승현 전남도 경찰방재국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 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

가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주민 소득창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생태체험마을 조성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내 보전부담금을 징수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의 및 복지 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최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주최의 ‘제 2회 유아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첼로 체험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비 및 생활안정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8명에게 2700여 만원의 후원금이 전달됐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공〉



순천만 정원박람회장

상수리 30 그루

나무 심기 시작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에 첫 나무심기가 시작됐다.〈사진〉

순천시는 지난 27일 순천만 일대 박람회장과 낭송루길 사이 3만㎡의 땅에 높이 10~15m, 지름 30~45cm 크기 상수리나무 30 그루를 심었다.

이번 나무심자는 박람회장내 첫 나무심으로 박람회장의 차량 소음을 줄이고 박람회장의 미관 제고 등의 목적으로 있다.

정원박람회장에는 이날부터 오는 2012년 5월까지 쿤나루 1만5000 그루를 포함, 총 47만 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큰나무 이송 등에는 산림청 헬기와 대형 트레일러 등이 동원된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전남도 일자리 취업·창업 박람회

내일 순천 팔마체육관 218개 기업 907명 채용

전남도가 31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2010년 전남도 일자리 취업·창업 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도내 218개 기업이 참여해 907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중 에너텍, 반도호이스트, 엔비오에너지, 프릭사 등 68개 기업은 협력 면접을 통해 35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SPP중공업, 이우드코리아, 정진산업 등 150개 기업은 전남도 일자리종합센터에 등록 후 구직자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통해 55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참가한 기업 중 순천에서 호텔업을 운영하는 에코그리드호텔의 경우 연봉 1600만원에서 2500만 원 사이 30명의 인력을 모집한다.

봉 2000만원 이상의 생산직 인력 20명, 농수축산업가공업체인 자연과미래에서는 연봉 2000만원의 사무, 영업인력 5명, 바이오기업인 엔비오에너지에서는 연봉 2200만원의 연구원 3명을 각각 선발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원하는 파스코에서는 연봉 2500만원 이상의 품질관리 등 인력 6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동현 전남도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박람회가 청년층의 구직난과 구인기업의 일자리 불일치(미スマ치)를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민간 농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농어업회의소는 지역 농업인의 민의 수렴과 농정자문, 조사, 연구, 교육, 지도, 각종 위탁사업 수행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진흥 이바지를 설립목표로 하고 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창립대회를 목표로 최근 10여명의 지역

나주 농어업회의소 7월 창립대회

진안·평창과 3곳 시범지역 선정…설립 구체화

진안·평창과 3곳 시범지역 선정…설립 구체화

농업인과 관계기관 대표 등으로 설립 추진단 구성은 마무리됐다.

농어업회의소는 지역 농업인의 민의 수렴과 농정자문, 조사, 연구, 교육, 지도, 각종 위탁사업 수행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진흥 이바지를 설립목표로 하고 있다.

단장에는 농업인 김석중씨가, 부단장에는 전준화 나주축협 조합장, 나종필 배포럼 대표 등이 선출됐다.

다음달 창립총회를 열어 정식 임원 진 구성을 마무리하고 최소 2000~3000여명의 회원가입을 목표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홍보활동 등을 펴기로 했다.

회원은 농어업 등 생산자뿐만 아니라 식품, 유통 등 관련업 종사자까지 모두 포함되며 영농조합, 농협 등도 단체나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업회의소는 외국 농산물 개방 여파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농민의 권익을 지키는民間 조직으로 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농어업인들의 보편적, 공익적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살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놓으신 소중한 건물을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223-1772 웹 011-602-2532

금당 공인중개사

■정가 이하

- 도온천 무인모텔 객실70 친정48억 대출30억 매도38억
- 생총동 상가·목욕탕·주택 대지 111 건평 367 대출 5억 보증금 2억 3200만원 월세 798만원 매도 11억
- 교회건물, 구시청(이마트) 옆 대지 71 건평 239(4층 건물) 노인요양시설포함 은행 1억 7300만원 매도 53억원
- 대인동 소방도로코너 5층상가건물 대지 67 건평 210 공시지가 2억8천 디귿도 사용 4억6천만원
- 광산구 우신동 대지185 건평624 친정15억4천 임대된곳은 전세5천만원 월650만원 대출5억5천 매도9억3천
- 유종동 땅 1632평 창고 350평 공시지가 14억2천 매도21억
- 교회부지 내놓동 484평 대출7억 매도 8억9천
- 금남로5가 대로변 대지496 건평872 공시지가153억2천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 학순이유면 소재지 국도집 주거지역 596평 창고·공장적합 대출5천6백 공시지가에 매도8700만원
- 금남로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13억3천 매도11억천
- 동구 수기동 상업지역 282평 오피스텔·원룸, 디기구주택적합 공시지가 648300만원 매도5천2만원
- 광산구 주유소 땅470 대출7억 공시지가 8억3천
- 대인동 계시암동 470평으로 상업지역732 건평435 공시지가 25억7천만원 매도13억3천만원
- 금남로4가 대지96 건평322 공시지가 매도16억
- 대인동 버스도로식당 대지63㎡ 공시지가에 매도 1억3400
- 대도·교환
 - 학순군 등면 서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좋은 1억7500
 - 남평을 교원리 버스도로 접인 211평 주택과공장 1억6천8백
 - 시찰복지. 북구 덕의동 광주대 부근 1840평 4억8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업용지

주차장용지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61)333-7077

010-3153-4242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앞 유지빌딩 501

전원주택지 금매

남구 대지동(대촌부근) 일반주거지역. 마을내 나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3.3㎡당 365,00